

中企 성장 돕고, 녹색전환으로 지속가능 길 연다

금융의 미래

IBK기업은행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스마트폰을 앞세운 모바일혁명의 ‘대전환’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인공지능(AI) 회사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9단의 바둑대결을 계기로 AI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후 전 세계는 AI의 발달에 힘입어 디지털전환(DX)의 바람이 기업을 중심으로 거세게 불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 전반에는 비대면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대전환시대’의 도래입니다. <메트로경제>는 이 같은 대전환기를 맞아 ‘생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한민국 전환기의 핵심동력인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집중 조명합니다. <편집자주>



IBK기업은행 김성태 회장.

해 9.1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누적 순이익으로 보면 2조552억원으로 같은 기간(2조602억원) 0.49% 줄었다.

**中企 위기극복 돕는 상생 체계
기술금융·자금지원 균형 확대
혁신기업 육성 위한 맞춤형 지원
성장단계별 금융 솔루션 정착**

상으로 금융,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출, 투자, 컨설팅, 수출입 지원, 디지털 금융 등 기업 경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업의 녹색전환 지원

기업은행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이 시점,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을 돕기 위한 금융과 비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앞서 기업은행은 2022년 녹색채권 600억원을 발행해,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을 현대화했다. 3년에 걸친 사업은 외부기관 검토 결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을 적용해 녹색 사업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이다.

기업은행은 또 K-택소노미 기반 녹색 여신 전략을 수립했다. 영업현장에서는 녹색 여신 수요를 발굴하고, 본부부서에서 녹색여신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증을 거쳐 고객에게 녹색 여신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여심심사 시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활동 인정 배제 보호기준 충족여부를 점검하는 적합성 판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설자금 뿐만 아니라

그룹에도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증가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총 여신 중 기업대출 잔액은 2분기 기준 283조6789억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165조8902억원)과 비교해 17조7887억 원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도전적인 시기에 금융동반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해왔다는 의미다.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기술신용잔액은 ▲1월 116조2205억원에서 ▲3월 120조948억원 ▲6월 124조9377억원 ▲7월 125조7517억원으로 늘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부터 우량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기업고객을 대

IBK기업은행의 비전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은행의 설립취지에 맞게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금융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요구는 경영환경 전반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왔다”면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전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녹색전환을 돕기 위한 금융 및 비금융지원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 기술지원 강화 7월 누적 125.7조원

12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3분기 지배주주 귀속순이익은 7280억원으로 1년 전(8014억원)과 비교

2030 2040 2050



녹색금융 비중
13% 확대



IBK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화



IBK금융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목표.

/IBK기업은행

운전자금까지 심사대상에 포함해 점차 녹색여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중립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더하고, 더 나아가 저탄소 업종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금융배출량을 탄소중립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녹색전환 앞당기는 지원체계
ESG 확산 통한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향한 中企 동행모델
친환경 경영문화 내재화 추진**

2030년까지는 녹색금융비중을 13%로 확대한 뒤, 2040년 IBK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화 한다. 2050년에는 IBK금융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90% 이상이 전력 사용량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며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등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방지하고 있고 영업점 점포 입점 시 고효율 건물 인증 발당 고려, LED 조명 교체 확대 등을 통해 전기

사용량을 감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탄소제로는 기간을 두고 중소기업에도 확대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탄소중립허브 시스템 구축하고 금융·비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도모할 것”이라며 “저탄소업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금융배출량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업은행은 영업점 내 고객 작성 서류를 탭을 통해 작성한다. 영업점 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류업무를 전자문서로 전환해 불필요한 종이사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고객에게 교류하는 서부도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한다.

국내 기업이 국외 탄소중립 규제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운업 유럽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국내 해운기업의 유럽배출권 구매 및 정산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지속가능성 실사법 등 글로벌 규제에 따라 탄소배출권,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해당 기업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기술 및 금융자문을 진행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제20회
파주 개성인삼축제
2025 10/18(토)-19(일) 파주 임진각 관광단지

마법처럼 길쭉한
DMZ 개성인삼